

신안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가시화

전국 처음으로 발전사업자·안좌도 주민 발전수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회의 개최

신안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발전사업자와 주민들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섬의 자원인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안좌면 자라도 주민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개최했다. 14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문명오(73) 씨를 대표로 선출하고,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들은 21일께 총회를 열어 조합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자라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지역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초청,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물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한빛원자력본부 제공>

‘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름즐거기’

영광 한빛원전 사택복지관 물놀이 장소로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사택종합복지관 광장에서 ‘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름즐거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빛원전 한상욱 본부장은 “지역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를 확산,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추억의 ‘낭만콘서트’ 22일 영광 예술의전당서 개최

70~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영광군은 22일 오후 4시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낭만콘서트 5080’을 연다. 이번 공연은 70~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과 그들의 주옥같은 대표곡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영광군 후원으로 열린다. ‘당신의 의미’의 이자연, ‘흔적’의 최유나, ‘장미빛 스카프’의 윤향기, ‘진정 난 몰랐네’의 임희숙, ‘여고시절’의 이수미 등 5080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당일 영광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배포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확이다.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30% 이상의 자기자본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라도 태양광발전사업은 67MW로 민자로 송·변전시설 건립을 계획 중에 있어 오는 9월 중 태양광발전시설을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의 발전사업 지분참여는 신안군이 지난해 10월5일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되면 자라도 주민 개인당 연간 400여 만원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신안군은 전망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호남지역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찾은 학생들이 김철 선생의 일대기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체험학습 인기

일강 김철 선생 생가 터에 중국 현지 청사 그대로 복원

함평군이 건립한 상해 임시정부 청사 역사관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이 체험학습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광복절 74주년을 계기로 함평에 조성된 상해 임시정부청사역사관과 김철 선생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역사관의 경우 함평군이 지난 2009년 6월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건립한 것으로, 중국 현지 임정청사가 중국의 대도시 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 대상지로 거론되자 군무장, 초대 재무장 등을 역임한 함평 출신 일강 김철 선생 생가 터에 22여원을 들여 중국 현지 청사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지상 3층(연면적 876㎡) 규모의 외관뿐 아니라 건물 내부 김구 선생 집무실, 화장실, 침실, 100여 년 전에 사용했던 책상, 의자, 각종 사무기기까지 당시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제작해 설치했다.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3년 1만770㎡ 부지에 21억 7000만원을 투입해 건립한 기념관은 호남지역 대표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 선생의 일대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김철 선생의 생애를 그린 삽화, 영정사진과 어록, 1918년 신한청년당 결성 당시의 사진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일강 김철 선생은 1886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서 태어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주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은 남일 심수택, 죽봉 김태원, 청봉 김윤 형제 등 구한말 호남의병장 6거두(巨頭) 중 3거두가 속한 항일의병 중심지로,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끈 일강 김철, 김석, 안후덕 등 독립투사도 함평 출신”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무안군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참여 활동가 모집

무안군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무안지역 청년활동가를 추가로 모집한다. ‘마을로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활력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회사 등에 근무하며 월 200만원 내외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받는다. 청년들은 최대 2년간 마을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계속근무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전남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무안군에서는 23개 사업장에 근무할 32명의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7일까지 전남도 일자리 통합망(<http://job.jeonnam.go.kr>)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되면 다음달 16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문의는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신안군이 보급한 고추수확차를 이용해 고추 수확작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 <신안군 제공>

신안군, 고추 수확 운반차 562대 농가 보급

고추 운반차를 아세요? 신안군이 쪼그려 작업해야 하는 고추 재배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추수확 운반차 지원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 해 484 농가에 고추수확 운반차 562대를 보급했다. 고추재배작업의 경우 오랜 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심각한 고령화로 고통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이 적지 않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신안군 설명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 ‘한우 생비빔밥’ 명품화 ‘5첩반상 한정식’으로 탈바꿈

함평의 대표 먹거리인 ‘한우 생비빔밥’이 ‘5첩 반상 한정식’으로 탈바꿈한다. 가장 쉽게 먹는 비빔밥을 차별화하고 고급화해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3일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에서 지역 내 비빔밥 음식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함평식 한우 비빔밥 특화 전문 명인과정’ 개강식을 열었다. 함평군은 다음달 24일까지 10차례 대학교수와 식당 운영 전문가들을 초청, ▲상차림 기법 ▲메뉴 상품화 ▲스토리 개발 ▲식품 산업연계 마케팅 개발 ▲식자재 관리 구축 ▲경영과 홍보마케팅 전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유명한 비빔밥 업소들도 찾아 견학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군은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명인과정 수료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접이탄 밥, 국, 김치, 간장, 고추장 등을 제외한 접시에 담은 반찬의 수를 말한다. 한정식에는 3첩, 5첩, 7첩, 9첩, 12첩 반상 등이 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